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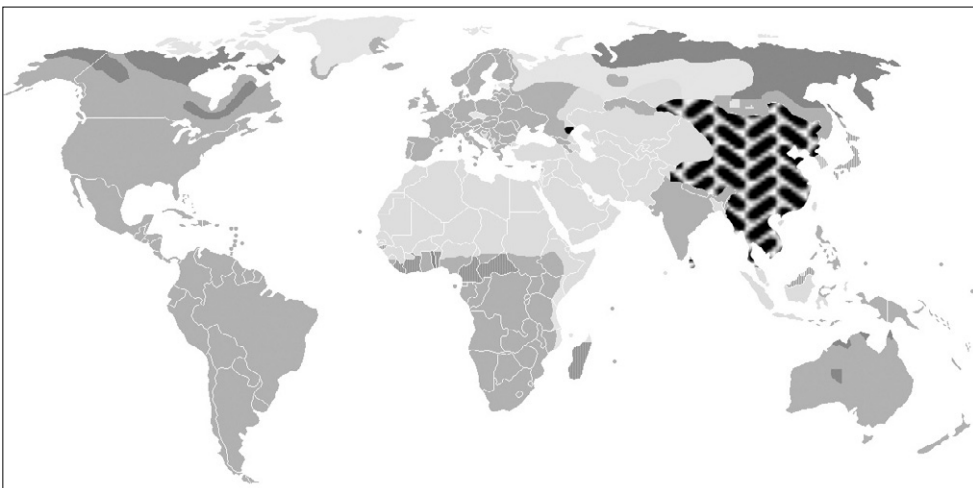


해외

WORLD

세계 최대 종교는 불교 15억

가톨릭 13억, 개신교 7억... 지금까지 집계에 중국 불자 제외



세계종교인구 분포도. 짙게 표시해 중국의 불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위키피디아

전 세계 66억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불자수는 3억 6000만 명으로 20억 인구가 믿는 기독교보다 턱없이 적은 숫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세계 불자수가 15억에 이른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진흙속의연꽃'의 네티즌으로 활동하는 블로거는 "세계종교인구"라는 '한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불교가 3억6000만, 가톨릭 13억, 개신교 7억, 이슬람이 12억으로 나온다. 이런 수치는 우리나라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거의 동일하다. 정말 불교 인구가 이것 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위키피디아와 '릴리저스톨러런스'에서 세계 종교 분포도를 검색한 결과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인구통계 자료의 편차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불교는 3억 5000만~16억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며 "중국 불자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불자수가 15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구글(Google)로 세계종교인구(world religion population)를 검색해본 결과, 종교인구 분포도에 불교는 2억5000만~5억으로 표시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

지만 도표 밑에는 각 지역별 종교에 대한 해설과 함께 중국의 종교(Religion in China)편이 있다. 이 가운데 불교 편에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열거돼 있다.

위키피디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불교는 억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야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신도를 갖는 체계화된 종교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중국정부는 10억의 인구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키피디아는 "오늘날 중국과 대만에서 정토종과 선종의 혼합된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도시의 성공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불자수는 6억 6000만(중국 전체인구 중 50%)에서 10억(80%)으로 예측됐고,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정확한 불자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집하는 모인도 없고 공식적인 종교의식이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각국의 종교를 아우르는 포털사이트 릴리저스톨러런스(religioustolerance.org)는 세계 종교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들

을 게재했다. 종교 인구분포에서는 타종교는 편차가 없었지만 불교는 3억 5000만에서 16억으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위키피디아는 국가별 불교 현황(Buddhism by country)에서 각 나라별 불교인구 현황을 조사해 도표로 나타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는 편차가 없었던 반면 중국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탓에 최소 8%에서 최대 80%로 집계됐다.

중국의 불자 비율을 인구수로 환산하면 1억5000만~10억5000만 명이고, 전 세계 분포된 불자 비율을 합산한 결과 66억의 인구 중 7.3~22.6%로 4억8000만~15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 불자수에서 중국 불자를 뺀 값을 보면 3억3000만~4억 5000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불교인구 3억 6000만과 근접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불자를 뺀 정보가 신뢰도 있는 정보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키피디아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엄밀히 분석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세계불자수를 최대 15억으로 집계한 것은 주목된다. 세계종교인구 통계는 다시 쓰여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불교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지닌 옛 통계였다면 더욱 그렇다. 이나은 기자

매월 요양원 찾아 어르신 진료

불자 의료인 봉사모임 무량감로회 창립... 초대 회장에 박귀원 교수

"대자대비한 부처님, 무량감로회원들이 봉사를 통해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 일체의 상(相)을 버리고 육바라밀 의술을 실천해 병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한 양약이 되길 발원합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불자 의료인이 모여 이타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자의료인 봉사모임인 무량감로회(회장 박귀원)는 1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무량감로회는 김종화(한국불교연구원 이사), 배광식(서울치대 교수), 박귀원(서울의대 교수)유창수(前 불자약사보리회장), 강영자(간호사), 백경숙(약사), 채원선(자원봉사자 대표) 등 의료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창립을 준비해왔다.

창립법회에는 前 동국대 불교대학장 인환 스님이 창립법회의 축사를 맡았으며 의사,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창립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임원선출, 사업 계획 및 예산



무량감로회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인환 스님(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박귀원 회장(가운데)이 떡 단상식을 하고 있다.

안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다.

박귀원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앞으로 양의, 한의, 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표하는 부회장을 각각 선출할 계획이다.

박귀원 회장은 "1998년부터 의료봉사활동을 해오던 불자약사보리회가 2009년에 해산하면서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팀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 됐고, 대승사상에

2월 28일에는 은양 보문사 또는 칠보사의 요양원 진료를 첫 사업으로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료를 펼칠 계획이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는 "국내 사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양로원과 연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보험이 있지만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주로 봉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스리랑카, 미얀마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불교국가에도 연 1~2회 봉사를 나가는 등 어디든 우리를 필요로 하는 데는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모임은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상담, 교육 및 의료 지원 사업 △불자의료인의 연계를 위한 조직 활동 지원 △국제 친선 및 포교를 위한 해외 의료 지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의료봉사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무량감로회는 첫 시작인 만큼 회원 증강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이나은 기자 bohjung@buddhapia.com

크든 작든 나누는 것이 자비

서울노인복지센터 '아이티 지진 모금행사'

대규모 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이티 국민들을 돕기 위해 어르신들도 모금 동참에 나섰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1월 25~29일 관내에서 센터 회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티 지진 모금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탑골인 Top Goal 문화사랑' 어르신들이 센터 내 어르신들 및 직원,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직접 모금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탑골인 문화사랑'은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의 보호,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노인자원봉사활동 단체다.

가섭 스님은 "이번 '아이티 지진' 모금행사를 통한 구호활동으로 아



탑골인 봉사단 어르신들이 모금활동 홍보를 하고 있다.

픈을 겪고 있는 아이티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재건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모금활동행사를 마련했다"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나누는 것이 '자비구원'이고 '동체대비' 사상"이라며 이윤 어르신들에게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의 모금액 전액은 어르신 대표와 직원이 함께 직접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승)에 전달 예정이다. (02)739-9504

이나은 기자

"노인복지사업 지속 확대"

천태종복지재단 송파노인요양원 위탁운영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정산)이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천태종복지재단은 기존 위탁운영체인 청암노인복지재단의 재위탁 포기에 따라 서울시 복지재단이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것으로 2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080㎡ 규모로, 현재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80명이 생활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김영 원장은 "2004년 개원 이래로 모범적으로 운영돼온 시설을 인수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운영법의 변동으로 잠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변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의 운영성과와 직원의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태종복지재단 관계자는 "2009년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구립아이들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시작으로 이번에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서울지역에만 총 5개소의 기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오는 4월 직영시설로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이고, 부산 등의 주요 도시와 사찰 인근에 노인복지관 및 요양원의 위탁과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천태종 복지재단의 노인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서울, 강원, 충북 지역 등에 13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02)873-3405 이나은 기자

사단법인 국제승가법황청 설립 선포 및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니다.

한국불교 흥흥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 초석을 놓기 위하여 본 (사)국제승가법황청은 이를 위해 중생과 함께 지혜를 모아 보살행 실천을 위하여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삼삼사와 칠정사님을 모시고 큰스님의 법맥과 법력으로 구족계를 수계하여 미래의 승려자격을 높이기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미계에서 대승왕까지 승계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후학 학인스님 양성을 위하여 산재된 군소종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포교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제화 세계화를 위하여 불교 각 국가(태국,스리랑카, 미얀마,중국등...)스님과 교류를 통하여 국제승가교황청을 여법하게 세계에 널리 홍보하여 불교중흥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법황청에서는 뜻을 함께하실 각 종단스님과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 국제승가법황청은

- * 환원하는 불교 * 실천하는 불교 *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불교
- * 보살도를 실천하는 불교
- * 21세기의 시대에 맞는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승가교단입니다.

사단법인 국제승가법황청 법왕 법왕 임원

- 대법왕 석 인왕 (한국불교 여래종)
- 국외법왕 석 혜철 (한국불교 원각종)
- 대법왕 석 동원 (대한불교 인화종)
- 국외법왕 석 법광 (세계불교 법륜종)
- 법왕 석 의천 (대한불교 미타여래종)
- 법왕 석 청원 (대한불교 불광종)
- 국내법왕 석 정암 (한국불교 조계종)
- 국내법왕 석 혜륜 (한국국불교 조계종)
- 법왕 석 월인 (대한불교 승가종)
- 법왕 석 일강 (대한신불교 천우종)
- 법왕 석 보광 (중앙불교 조계종)

(※ 종단별로 세계평화와 한국불교 흥흥을 위하여 평화대사 58명이 임명되어 현재 활동중임)



▷ 2010년 1월 26일 국제승가법황청 설립 선포 및 취임법회